

아동양육시설 후원부모의 자녀결연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최운선**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 후원부모의 자녀결연 경험을 탐구함으로써 자녀결연 경험의 의미를 심도 깊게 성찰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양육시설 원장의 추천으로 10년 이상 자녀결연 경험이 있는 부모 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결연 전 경험에서는 ‘엄마따라 시작한 보육원 봉사’, ‘친구를 잃은 상실 트라우마’; 결연부모 되기에서는 ‘실패로 돌아간 첫 결연’, ‘마음을 열고 재시도’, ‘결연 부모역할 터득하기’; 결연가정으로 나아가기에서는 ‘딸 시집 보내는 친정엄마 마음’, ‘긍정적인 부모 모델링’, ‘자녀와 연결하기’에서 ‘놓아주기’를 도출하였다.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연가정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아동양육시설 후원부모, 자녀결연 경험, 가정체험, 내러티브 연구

논문 투고일 : 2024. 10. 02. 최종심사일 : 2024. 12. 03. 게재확정일 : 2024. 12. 20.

* 이 논문은 2024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Choi, Woon Sun, 91 Daehak-ro, Seonghwan-eup, Seobuk-gu, Cheonan, Chungcheongnam-do, Korea. 31020. E-mail: woonsunchoi@nsu.ac.kr

I. 서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의 주양육자인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5조). 특히 부모는 이러한 역할에 있어 사회적,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존재이다(도미향 외, 2020). 하지만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는 보호대상 아동의 상당수는 여전히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며, 2022년 기준 보호대상 아동의 51.9%가 시설보호 되고 있으며, 이 중 아동양육시설 보호가 46.3%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많은 수의 아동을 대규모로 보호하기 때문에 아동의 개별욕구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이주연 외, 2023; 임성은 외, 2019).

최근 정부는 시설중심 보호에서 아동권리 기반 보호로의 전환을 위하여 ‘시설보호 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와 탈시설화 정책’을 발표한 것에 이어 2022년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이봉주 외, 2022)과 ‘가정형 보호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보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주연 외, 2023). 하지만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의 필요성과 의존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가정보호로의 전환은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임성은, 2024).

가정보호 전환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시설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이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성장환경을 우선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 일반가정과 시설아동 간의 결연을 통해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만남과 가정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심리·정서·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년기 가정생활 경험의 부재로 시설퇴소 성인들의 상당수는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애정과 교감을 나누는 방식에 있어서도 서툴러서 결혼생활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하며, 결혼과 가족의 의미, 자녀양육관 등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권지성, 2007; 김수정 외, 2017; 변미희·최운선, 2024; 신혜숙, 2016; 황수연, 2017).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시설보호아동들이 가정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일반가정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아동양육시설에서는 보호아동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후원자와 아동을 결연하여 금전적 후원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원된 후원금은 결연아동의 명의로 된 계좌에 적립하거나 아동의 방과 후 활동, 유치원 교육비와 의료비, 식사지원비 등 양육비로 사용된다. 하지만 아동보호정책에 따라 아동의 개인연락처, 시설 밖에서 후원자와의 직접적인 만남과 교류, 더 나아가 후원가정 방문 및 가정체험 등은 제한하고 있다. 아동의 가정복귀 및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일부 아동양육시설들만이 지역사회 내 일반가정과 교류 및 부모결연을 통한 가정체험을 시범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시설보호아동의 가정결연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며, 결연프로그램이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윤종선(2020)의 일대일 아동결연 프로그램이 결연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결연아동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장학금 수혜에 대해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혜경과 황선휘의 연구(2009)에서는 시설 중증장애아동이 결연가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적응행동과 자기관리기술이 향상되고, 각자 결연가정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가정결연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아동양육시설 후원부모의 자녀결연 경험을 내러티브 연구방법으로 탐구함으로써 자녀결연 경험의 의미를 심도깊게 성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시설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양육시설 후원부모의 자녀결연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양육시설 후원부모의 자녀결연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내러티브 연구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 후원부모의 결연경험을 탐구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개별적인 이야기 이해를 목적으로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이다(강현석 외, 2011). 내러티브란 단순히 사실이나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상황적 맥락 안에서 형성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경험은 이야기 형태로 개별 인간 안에 축적된다(홍영숙, 2019 재인용).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탐구할 수 있는 3가지 지점 즉, ① 시간성, ② 사회성, ③ 장소를 고안한 것이다. 먼저 시간성(temporality)이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현재의 경험이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경험에서 무언가를 취하고, 다가올 미래의 경험의 질을 어떠한 방향으로든 수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시간의 연속성 안에서 참여자의 과거 경험이 현재의 경험, 그리고 미래의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회성(sociality)이란 인간의 경험이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경험을 해석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장소(place)는 경험이 발생하는 구체적이면서 물리적인 장소가 경험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전체 맥락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어떠한 의미로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해석한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녀결연 경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과거의 경험이 현재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경험이 미래 경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것이며, 자신의 삶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고자 하였다.

2. 연구참여자 소개

연구참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친정엄마와 함께 아동양육시설 봉사를 다녔으며, 고등학교

시절 시설출신 친구의 자살로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 친구를 잃은 슬픔과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갑갑한 심정으로 대학시절을 보냈으며, 우연한 기회에 장애아동시설에서 가정결연 사례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결혼 후 연구참여자는 친생자녀와 입양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후원을 함께 하는 가족과 가정체험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연 실패의 아픔을 맛보게 된다. 연구참여자는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쳐 결연에 재도전함으로써 중2 사춘기 소녀인 결연자녀와 10년 넘게 결연부모-자녀 관계를 맺고 있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연령 (학력)	(현)직업	배우자		자녀			
		연령	직업	출생 순위	연령/성별/혼인	관계	결연(양육) 기간
47세 (석사)	가정 주부	51세	회사원	첫째	25세/여/기혼	결연	12년
				둘째	21세/여/미혼	친생	21년
				셋째	13세/여/미혼	입양	11년 7개월

3. 연구절차

연구자는 아동양육시설 후원부모의 자녀결연 경험을 이야기로 탐색하기 위해 먼저 양육시설아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갖는 비공식 모임에 참석하였다. 결연을 준비하고 있거나 결연 중인 부모들의 솔직한 이야기와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를 위한 선이해를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연구자는 경기도 소재 아동양육시설 원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참여자를 섭외하였으며, 양육시설아동과 10년 이상 지속적인 만남과 가정체험을 통해 결연관계를 유지해 온 부모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연구참여자에 대한 대면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매번 1~2시간 동안 심층면담 및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인 결연모와 1명의 질적 연구자의 검토를 받고 그 조언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양육시설 후원부모의 자녀결연 경험

1) 결연 전 경험

(1) 엄마따라 시작한 보육원 봉사

결연모는 어릴 적부터 친정엄마를 따라 보육원에 봉사를 꾸준히 다녔으며, 자연스럽게 보육원 친구들과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함께 놀았던 추억을 지금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친구에 대한 이질감을 느낀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애들한테는 엄마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친정엄마의 이야기가 십대 소녀의 어린 마음에 남다르게 다가왔다.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정엄마는 보육원 퇴소 후 갈 곳 없는 친구를 위해 따듯한 밥 한 끼와 보금자리를 선뜻 내어주셨으며, 거부감 없이 의지할 수 있는 ‘이모’가 되어 주셨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다는 말처럼 친정엄마의 삶은 이후 결연모가 자녀를 입양하고, 또 결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제 친정 엄마가 봉사를 되게 오래 하셨어요. 어릴 적에 엄마 따라서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했잖아요. 고아원을 많이 다녔어요. 거기서 제일 친한 친구도 고아원 출신 친구인데, 언제인지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번씩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정말 잘 사는 집도 아니고, 그 열일곱 평에 다섯 식구가 사는데 한 번씩 제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옹기종기 그냥 놀아요. 저는 그 아이에 대한 이질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1차 인터뷰)

“친정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 할머니가 되어도 엄마 찾게 돼. 애들한테는 엄마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도 엄마랑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엄마도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도 엄마가 보고 싶어’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좀 남달라요.” (1차 인터뷰)

“친구가 사회에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뭐 몇 년 동안 보육원에 더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자립기간에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런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네가 갈 데 없

으면 우리 집에 와라. 그 친구한테 정말 거부감 없는 집이었거든요. 항상 저희 엄마를 이모, 아빠를 이모부라고 부를 정도로 그랬는데...”(1차 인터뷰)

(2) 친구를 잃은 상실 트라우마

결연모는 자신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쉽게 받아주지 않는 냉정한 현실에 절망하고 짧은 생을 마감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세상에 제대로 한번 피지도 못하고 지는 꽃이 되어버린 친구의 죽음으로 결연모는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으며, 그 트라우마로 인해 보육원 봉사를 한동안 접기도 하였다.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는 친정어머니를 보면서 결연모는 자식을 잃은 아픔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다가 친구를 제가 잃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95년 1월달에 친구가 떠났어요.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너무나무 똑똑하고 뚝뚝하고 잘하는데 사회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애가 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그 현장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애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1차 인터뷰)

“엄마 내 친구 이름 대면서 그 애 갔을 때 엄마 어땠어?’ 제가 친구 영정을 들었거든요. 엄마 아빠 저희 식구가 장례식을 다 해줬어요. 엄마가 ‘너 큰 언니 보낼 때 그 아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그게 진짜 자식같이 느껴져? 저는 몰랐죠.”(1차 인터뷰)

2) 결연부모 되기

(1) 실패로 돌아간 첫 결연

대학시절 결연모는 장애인시설 봉사를 다니면서 우연히 시설아동이 후원자 가정에 정기적으로 놀러갔다 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 나쁘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흘러 결연모는 결혼 후 첫 애가 3살 무렵 시설후원을 함께 해왔던 친구가정이랑 첫 결연을 시도하였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해줄 것도 없지만 그냥 하루만 자고 가는 것 정도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너무 힘든데 하나라도 알고 나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가정체험은 석 달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그때 가정체험을 처음 했는데 좀 많이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았어요. 아이가 대놓고 많은 금품적인거 물질적인 거, 그리고 보육원에서 애한테 시켜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 그것을 경험했어요. 가정체험 많이도 안 했어요. 딱 석 달 3~4개월 했나? 한 달에 한 번요.” (1차 인터뷰)

(2) 마음을 열고 채시도

결연모는 첫 결연의 실패가 준비 없이 마음만 앞서는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기적인 독서모임, 강좌와 교육, 꾸준한 시설봉사 등을 통해 가정외보호아동의 성장배경과 특성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실제로 결연에 필요한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하였다. 결연의 진정한 동기, 바람직한 결연이란 무엇인지, 부모중심이 아닌 자녀중심의 결연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일련의 본질적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다. 첫 결연실패가 없었다면 결연모는 이러한 고민 없이 자기만족과 선행의 차원에서 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첫 실패는 삶과 인생, 가족과 자신에 대한 재통찰의 기회를 갖게 하였으며, 자신이 갖고 있는 인식세계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하였다.

보육원 원장님을 통해 ‘애들한테는 엄마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친정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호수처럼 조용했던 결연모의 마음에 작은 돌을 던진 것처럼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첫 결연실패를 교훈 삼아 결연모는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세웠으며, 마침 중2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결연자녀를 만나게 되었다.

“(가정체험) 하시려면 봉사부터 시작하는게 좋아요. 잠깐 하는 것 말고 정말 꾸준히 그리고 그전에는 저는 좀 책 좀 읽었으면 싶어요. 책 읽을 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두 명이 엉엉 울었고요, 에이프릴 할 때는 다섯 명이 대성통곡을 했어요. 별거 아닌데, 가족이라는 구성이 다르게도 된다. 이거 하고 나서 정말 많이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가족도 이렇게 생기는구나.”

“제가 다시 오픈하게 된 것은 원장님의 말 딱 한마디예요. 애들한테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원장님께서도 입양을 많이 보내줬어요. 애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돼. 웬만하면 원장님은 다 가정을 연결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애들은 가정에서 살아야 돼 그 한마디가 너무 꽃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애들을 못난 어른을 대신해서 좀 더 챙겨주고, 더 중요한 거는 보육시설

에서 퇴소하고 나서 ‘안녕’이 아니라 애들이 계속 어른이 되고 또 자기도 어른이 될 거잖아요. 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싱글로 살면 사회의 어쨌든 일원이 되는데, 애들이 힘들 때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 친구가 솔직히 제일 생각났거든요. 그 친구처럼 애들이 힘들면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지? 그럼 계속 재랑 연결되는 거야.”

(3) 결연 부모역할 터득하기

① 대화를 통해 마음 열어주기

처음 결연자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사춘기 특유의 뼈딴함과 반항심으로 가득한 중2 소녀이었다. 시설에서 자란 결연자녀가 마음 문을 열고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 결연부모의 절대적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아이의 차가운 외면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결연모는 한결같이 대화를 통해 아이의 마음에 다가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보답으로 결연모와 결연가족에게 조금씩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제가 전화로 연락을 많이 했어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문자하고 특하고. 외면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모’ 이러면서 이제 특이 오는 거예요. 여행도 다니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고등학교 선택 때 ‘어디어디 있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온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미친 듯이 막 답해줬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때부터 조금씩 진짜 정말 미세하게 0.01mm씩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정말 한 이불 덮고 자기 전까지 수많은 수다와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대화가 제일 좋더라고요. 대화하면서 어떨 때는 OO이한테 자기 동생들도 까고, 이모부 까기도 하고, OO이는 누구 까고 누구 얘기를 다 해요.”

② 가정에서 자리 만들어주기

결연모는 결연자녀가 가정의 일원으로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의 특성과 가족규칙, 생활습관에 대해 알려주고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부모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보다 필요시에는 결연자녀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면서 큰 언니로서의 지위를 가정에서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너가 OO이한테 이렇게 얘기 좀 해줘 봐봐. 제가 엄마의 역할을 조금 분담을 시키

는 거예요. 너가 언니니까 이것 좀 해줄래? 내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자리를 조금 한걸음씩 빼는 거예요. 00이한테는 언니가 이걸 모르니까 너가 ‘언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고, 00이한테는 ‘00아, 언니가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빼는 거예요.”

③ 든든한 버팀목 되어주기

결연자녀가 밖에서 억울함을 당하거나 불공정 대우를 받았을 때 결연모는 가장 앞장서서 부모로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비록 사소한 역할이지만 결연자녀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양육시설 아동의 대부분은 생물학적 부모와 거의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원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심리·정서적 지원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결연모는 ‘조금 철든 어른이 못한 어른들’을 대신해 부모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는 것이 바로 결연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실 그대로 차라리 네가 대학 안 가도 돼. 만약에 떨어지면 갈 데 없으면 이모 집 와도 돼. 그 대신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무엇을 해도 응원할 거니까 네 하고 싶은 거 해.”

“00이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약속을 하고 조별 수업을 하게 됐는데 그 애들이 애를 따를 시킨건지 약속 시간 40분 넘게 애가 밖에 덜덜 떨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집에 당장 가. 안 그러면 이모가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할 거야’ 근데 애한테는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이모가 있어 되게 좋았어’ 이러더라고요. 그게 사소한 역할인 거잖아요.”

④ 결연자녀의 경계선 존중해 주기

한편 결연모는 결연가정에서 부모-자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함을 고백하였다. 결연부모는 무엇보다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주어야 하며, 서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깊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결연부모는 사회적·법률적으로 아이의 완전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과도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생기게 되면, 이 관계는 결국 지속될 수 없으며 서로에 대해 실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람직한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가능한 결연자녀의 경계선을 존중해주려고 하였다.

“아이가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물어보면 그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답변 최선을 다해줘요. 그렇다고 제가 내 딸만큼 깊이 관여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 ‘왜냐하면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깊이의 차이야. 그게 다른 거야’. 가정결연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 아이 부모는 아니에요. 이 아이의 부모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가 엄마 같다고 생각하면은 나도 생각지 못할 너무 어마어마한 의무감이 생길 것이고, 너 또한 하지 않아도 될 행동까지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의무감이 생긴다. ...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도 00이랑은 얘기를 했어요.”

3) 결연가정으로 살아가기

(1) 딸 시집 보내는 친정엄마 마음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해 고시원에 들어간 결연자녀가 갑자기 남자친구와의 결혼소식을 알렸을 때 결연모는 적지 않게 놀랐다. 결연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결연모는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 자리에 친정부모를 대신해 나가게 되었다. 딸 시집 보내는 친정엄마의 마음으로 결연자녀를 시집 보냈으며,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의 전반과정을 함께 하였다. 결혼 후 시댁에 해야 할 도리, 부부관계, 고부관계에 대해서도 결연모는 마치 ‘링거에 꽂아서 똑똑 내려주듯이’ 결연자녀에게 처음부터 열까지 하나씩 가르쳐 주었다.

“이제 결혼하기 전 상견례 할 즈음에 친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눈물이 팍 터졌는데 애가 우리 집을 (진짜 친정으로 생각하는구나). 우리 큰딸 울고, 우리도 울고 그랬는데.”

“00이가 이제 배가 불러오면서 제가 임신했던 경험을 또 같이 얘기 해 주고, 힘들지? 주변에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또 임신하면 예민해지잖아요. ‘이모 이거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태동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엄마랑 나눌 수 있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엄마도 내 가졌을 때 이랬나 그런 기분을 나누는 거예요.”

(2) 긍정적인 부모 모델링

어렸을 때부터 양육시설에서 자란 결연자녀는 가정에서 성장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녀 양육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결연모는 부모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교감하는 방법, 부모의 양육신념과 가치관에 대해 결연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긍정적인 부모역할 모델링을 해주었다.

“네가 못 받았다고 아들한테 주는 것은 집착 이상이야. 그것은 너 아들이 독립된 인간으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너 아바타 밖에 될 수 없어. 어떻게 사랑을 받고 주는지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또 우리는 보여준 것도 없는데 애가 ‘이모네처럼 살고 싶어’ 사위도 ‘이모처럼 살고 싶어. 이모부처럼 살고 싶어’ 이 말 들을 때 좋죠.”

(3) 자녀와 ‘연결하기’에서 ‘놓아주기’

결연모는 세월이 흘러 사춘기 소녀에서 아기 엄마가 된 결연자녀를 보면서 부모됨의 보람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앞으로 결연자녀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눅 들지 않고 누구보다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결연모는 결연자녀와 어떻게든 연결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성인이 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린 그녀를 보면서 이제는 놓아줄 시기가 다가왔음을 받아들이고, 자녀의 독립과 홀로서기를 응원한다. 한편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딛고 씩씩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결연자녀의 모습은 어린 시절 짧은 생을 마감한 보육원 출신 친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상실감에 대한 위로가 되었다.

“OO이도 그전에는 보육원이라고 말 안했는데요. 제 사위가 보육원 출신인 것 알고 사귀었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는게 부끄러운게 아니다. 부끄러운 건 어른이야. 너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을 때 부끄러운거지 보육원 출신이라는 자체가 아니야.”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OO이 생활에 많이 관여는 안하는데 0.5% 정도는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애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 저희도 아이 덕에 좋은 거죠. 일찍 사위도 생기고 손주도 생기고. OO에 덕에 또 다른 세상의 아이를 만났고.”

2. 자녀결연 경험의 의미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 후원부모의 자녀결연 경험을 내러티브 방식으로 탐구하였으며,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연구참여자는 고등학교 시절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보육원 출신 친구에 대한 상실의 아픔을 안고 살아왔다. 이러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못난 어른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첫 결연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아이를 돕고자 하는 연구참여자의 순수한 마음과 선의와는 달리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면서 결연을 종료하게 된다. 첫 결연실패를 통해 아직 준비가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결연의 동기와 진정한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참여자는 첫 결연실패를 거울로 삼아 두 번째 결연을 재도시하였다. 결연자녀와 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결연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결연부모의 역할에 대해 조금씩 답을 찾아갔다. 결연가정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상호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모 혹은 조카, 그 이상이 될 수 있지만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연자녀의 의사와 경계를 존중해주는 것, give and take가 아닌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라는 것, 언젠가 결연자녀가 더 이상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이 관계에 대해 부담을 가질 때 집착이 아니라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셋째, 아동양육시설 후원부모의 자녀결연 경험은 가족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호연대’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결연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좀 더 철든 어른이 못난 어른을 대신해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그 빈자리를 채워줌으로’ 이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혈연이라는 좁은 가족 개념을 벗어나 결연으로 상호연대를 형성함으로써 연구참여자는 가족의 다양성과 참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넷째, 연구참여자는 사회의 편견에 굳건히 맞서 출산과 입양뿐만 아니라 결연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였다. 특히 결연을 통해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삶에서 행복감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최선을 다해 자신이 선택한 현재의 삶과 관계를 영위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 후원부모의 자녀결연에 관한 이야기를 내러티브 연구방법으로 탐구하였으며, 자녀결연의 경험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연가정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시설에 보호된 아동을 위한 결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2023년‘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에는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 기능전환·소규모화 및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와 제도개선 등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를 담고 있다. 아동양육시설 기능전환을 위한 과도기 단계에서 보호대상아동들이 일반가정과 일대일 결연을 통해 가정형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결연가정을 위탁가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일반가정과 결연된 양육시설아동은 결연가정에서 다양한 가정체험을 경험하면서 성장하여야 한다. 가정체험 대상 아동과 부모의 자격, 사전교육, 지원 비용,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일부 아동양육시설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을 정기적으로 결연가정에 초대하여 일상을 공유하고 가정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사전교육과 운영모델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결연가정의 역량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기때문에 시행착오를 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정체험 제도화를 위해 정부는 이미 결연경험이 있는 기관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가정체험 운영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결연아동 및 부모의 요구에 따라 전문화된 가정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과 결연가정의 특성과 요구도를 반영하여 가정체험 프로그램은 가정으로 초대하여 일상을 공유하고, 심리·정서·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넷째, 결연가정 및 가정체험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결연가정과 가정체험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공익광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캠페인 등을 통해 가정체험제도의 취지, 방향을 알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현석·소경희·박민정·박세원·박창언·염지숙·이근호·장사형·조덕주 역(2011).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 Clandin, D. Jean., and Connelly, f. Michael, 2004,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서울: 교육과학사
- 관계부처합동(2023).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성장기회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 권지성(2007)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퇴소 후 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아동과 권리**, 11(1), 1-29.
- 김수정·김지선·정익중(2017). 가정외보호 퇴소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58, 1-45.
- 도미향·김응자·김경미(2020). 가정위탁 부모 양육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부모코칭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부모교육연구**, 17(4), 29-50.
- 법제처(2024). 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
- 변미희·최운선(2024). 아동양육시설 퇴소 성인의 원가족과 결혼 및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9(4), 443-466.
- 보건복지부(2023).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
- 신혜숙(2016).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접근.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혜경·황성혜(2009). 시설 중증장애아동의 결연가정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적응행동과 자기관리기술 효과성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7(1), 165-180.
- 윤종선(2020). 일대일 아동결연 프로그램이 결연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결연 장학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11), 559-568.
- 이봉주·박정민·김선숙·이재윤·백아름·김선영(2022).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추진방향 연구.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주연·이정은·이상정·임성은·조정우·김희진(2023).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성은(2024). 가정보호의 대안적 사례 탐색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31, 34-48.
- 임성은·황주희·이민경·강지원·조영림·김형모·안동현·정선영·손병덕(2019).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을 위한 운영 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영숙(2019). 캐나다에서 한국인 부모로 살아가기: 한 한국계 이민가정 어머니의 부모이야기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7(2), 99-125.
- 황수연(2017). 아동양육시설 퇴소성인은 가족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Abstract

Narrative Study of the Child-Matching Experiences of Sponsoring Parents in a Child Care Facility

Choi, Woon Su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ild-matching experiences and correlated implications for sponsoring parents in child care facilities.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one parent who had more than ten years of experiences in child-matching, at the recommendation of the director of a child care facil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narrative inquiry methods.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experiences before the sponsorship were 'volunteer work at a daycare center following my mother' and 'the trauma of losing a friend'; and for those becoming a sponsor parent, they were 'the first match was a failure', 'open your heart and try again', and 'mastering the role of a sponsoring parent'. Living as a sponsoring family was derived from 'a mother's feelings about marrying off her daughter', 'positive parent modeling', and 'letting go of connecting with your childre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policy and practical recommendations are presented.

Keywords : Child-matching experiences, sponsoring parents in child care facility, home experiences, narrative stud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welfare, Namseoul University